

수입 늘고 채무 제로…장성, 건전성 ‘전국 최우수’

장성군이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 단체 재정분석’에서 핵심 재정지표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전국 최우수 자치체에 선정됐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은 전국 243개 자치체의 전년도 예산·결산자료를 토대로 지방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 분석·평가하는 행안부의 지방 재정 관찰(모니터링) 제도다.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4개 평가지표와 31개 보조지표를 분석해 평가 결과를 도출한다.

인구 및 재정 여건에 따라 ‘군-II’ 유형에 속한 장성군은 3개 분야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건전성’ 부문에서 통합 재정수지비율이 전년도 -5.7%에서 3.3%

행안부 2025년 재정분석 ‘최우수 지자체’ 선정

재정건전성·세외수입증감률 등 핵심 지표 개선

로 개선된 점이 눈에 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전남에서 가장 낮은 0.43%를 기록했다. 지방재정을 발행하지 않은 채무 ‘제로(0)’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해온 성과다.

‘효율성’ 분야에서는 세외수입증감률이 전년도 -5.8%에서 올해 56.7%로 크게 올랐다. 첨단3지구 개발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와 각종 유휴자금 예치를 통한 이자 수입 확대 등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경상경비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업무추진비를 동결하는 등 예산 절감에도 힘썼다. 이로 인해 자치체 내부경비관리 노력도를 평가하는 자체경비 비율이 유형평균 대비 약 20% 낮게 나타났다.

‘계획성’ 분야에선 지방세 세수예측력 및 제고 노력을 측정하는 세수오차비율이 전년도 96.4%에서 99.4%로 개선됐다.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한 장성군은 행정안전부



장성군이 행안부 재정분석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체에 선정됐다.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

김한종 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서도 협세를 아끼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 준 군 공직자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통해 건전하고 효

율적인 재정 구조를 확립하고, 군민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군 기자 lhb6699@gwangnam.co.kr



순천시는 최근 혁신농업인센터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기념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순천, 농업생명 지원 활용 ‘그린바이오산업’ 박차

육성지구 지정 기념식 개최…정책·비전 공유

순천시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혁신농업 인센터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기념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가, 기업 관계자, 농업인,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순천 그린바이오산업 정책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행사에 앞서 순천시, 순천시의회, 그린

바이오 기업 12개사가 참여한 공동협력 서명식도 열렸다.

참석기관과 기업은 순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서로의 역량과 지원을 모아 그린바이오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번 육성지구 선정의 의미를 더욱 굳건히 했다. 이어진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이하성 전남바이오진흥원 그린바이오 본부장이 ‘그린바이오산업의 현황과 순천 혁신도시 조성 전략’, 김동규 한국농업

기술진흥원 그린바이오사업팀장이 ‘정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방향’, 전지연 순천대학교 그린바이오 지산학캠퍼스 단장이 ‘신학연관 협력의 중요성’, 방수진 순천시 신성장산업과장이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정책’, 정도연 발효미생물산업 진흥원장이 ‘재단의 역할과 성공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책 방향과 산·학·연·관 협력, 지역 산업 발전 전략 등 순천형 그린바이오 생태계의 비전과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참석 시민들은 “순천 그린바이오 산업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육성지구 지정은 시민들의 열망과 현신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시의 인프라와 추진역량에 대한 정부의 인정이다”며 “시민·기업·대학·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치면 빠른 시일 내에 선두주자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품개발·소재화·설비 구축, 원료 계약재배 지원, 대규모 인프라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를 통한 지원하는 제도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웹드라마 성지 여수, 11번째 ‘더 섬’ 제작 돌입

일레븐 브리지·세계섬박람회 연계 관광 스토리텔링



여수시가 내년 3월 배포를 목표로 11번째 여수관광 웹드라마 ‘더 섬(The Island)’의 본격 제작에 돌입했다.

이번 작품은 여수의 섬에서 태어나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5명의 동창이 경쟁 사회 속 삶과 갈등을 마주하며 세대 간 오해와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총 5화, 50분에 담았다.

1화 이 밤을 다시 한번, 2화 꿈같은 세상, 3화 그대 밤길 머무는 곳에, 4화 바라볼 수 없는 그대, 5화 사랑의 철불로 이어지며 ‘꽃이진 지도’를 매개로 과거와 현재가 서로 소통하며, 이야기의 물입도와 재미를 높인다.

주인공들은 서로를 통해 희망과 욕기를 회복하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아가는 여정이 아름다운 여수의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극 중 탈이는 섬과 바다를 연결하는 여

수의 11개 다리(일레븐 브리지)를 상징하며, 이번 작품이 여수시의 11번째 웹드라마라는 점과도 맞물려 특별한 상징성을 더한다.

또 이번 웹드라마는 K-컬처의 세계화 흐름을 반영해 케이팝 ‘데문 헌터스’를 연상시키는 아이돌 지망생 대현이와 외국인 엘리가 만들어가는 로맨스 서사도 함께 그린다.

촬영은 낭도와 추도의 숨은 명소를 비롯해 적금대교, 가사리 갈대밭, 짚라인, 해상케이블카 등 여수의 대표 관광지를 두루 담아내며 지역의 아름다움과 풍경을 영상으로 담았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는 웹드라마를 통해 도시의 매력과 스토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이번 11번째 웹드라마 ‘더 섬’ 역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여수만의 감성과 세계관을 담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이미지를 선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gwangnam.co.kr

광양, 내년부터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급

전국 시 단위 최초 시행…연 최대 350만원

광양시는 내년부터 전국 시 단위 최초로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장학금은 기존의 등록금 중심이었지만 주거비, 교재비, 식비 등 대학생

활 전반에 필요한 생활비 장학금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생활비 장학금은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비 장학금은 부모 또는 보호자, 학생 본인 모두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학생의 경우 관내 대학진학에 따른 거주지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재학생이며, 성적 기준은 직

전 학기 C학점 이상, 지원 횟수는 편입 학, 재입학을 포함해 최대 8학기까지 가능하다.

생활비 장학금은 소득기준(기초 및 자

상위, 1~3구간, 4~6구간, 7~8구간, 9구간, 10구간)과 학생 거주 기간(7년 이상 100%, 3년 이상 5년 미만 70%, 3년 미만 50%)에 따라 2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별 30만원씩 증액 지원하여 최대 연 350만원까지다.

시 관계자는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은 학생들에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학부모들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교육비 경감 효과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학생들이 출발선의 차이로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

화순, 돌봄서비스 강화…가족센터 업무 위탁협약

다문화가족 등 안정 정착 지원

해 다양한 가족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아이부터 다문화가족까지 모든 군민이 함께 어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기반을 강화해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다양한 돌봄 수

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군은 앞으로도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및 안정적 정착 지원, 공동 육아 나눔터 활성화,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